

고도근시는 도수 자체가 높아 일상 불편이 큰 데다 각막, 망막, 녹내장 위험과도 얽혀 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는 시점이 오면 환자와 보호자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묻는다. 내 눈에 맞는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답은 단순하지 않다. 지역과 병원 규모, 장비 세대, 수술 방식, 보증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범위에 따라 같은 환자라도 견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술을 오래 상담하고 함께 결정해 온 입장에서, 시장에서 실제 관찰되는 가격대와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범위를 제시하고, 왜 그런 범위가 생기는지 짚어 본다.

고도근시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준과 수술 선택의 전제

고도근시는 일반적으로 -6.00D 이상 또는 안축장 26.5 mm 이상을 가리킨다. 이 수준이면 안경 도수가 높아 렌즈 두께와 왜곡이 부담스럽고, 콘택트렌즈는 건조감과 산소공급 문제로 한계가 드러난다. 동시에 각막을 많이 깎는 레이저 교정술은 안전 마진을 잃기 쉽다. 수술 선택은 각막 두께, 각막 지형도, 동공 크기, 안축장, 망막 상태, 건성안 정도, 직업과 취미 같은 생활 패턴까지 종합해 정한다.

대략적인 선택의 흐름을 예로 들면 이렇다. 각막 두께가 충분하고 고도근시라 해도 절삭량이 안전 범위에 들어오면 레이저 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절삭량이 과도하거나 각막 형태가 취약하면 안내렌즈(ICL, PIOL)를 우선 검토한다. 연령이 높고 수정체 혼탁이 시작된 경우에는 투명 수정체 제거술로 굴절을 맞추는 편이 전체 위험을 낮출 때가 있다. 같은 고도근시라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비용 비교가 의미를 갖는다.

수술 방식별 비용 밴드와 그 안에서의 변수

고도근시 수술 비용은 방식별로 밴드를 그릴 수 있다. 여기에 지역과 병원 규모, 장비, 보증 조건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다음 수치는 한국 주요 도시에서 실제 환자들이 접하는 대략의 범위로 이해하면 된다. 이벤트 가격이나 특정 패키지로 더 낮거나 높을 수 있다.

레이저 교정술. 라식, 라섹, 스마일, 최신 스마트 라섹 등으로 나뉘며, 고도근시에선 절삭량과 야간눈부심을 고려해야 한다. 라식, 라섹은 양안 기준 150만 원대 중후반에서 300만 원대, 스마일은 25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가 흔하다. 개별 병원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세대와 개인 맞춤 알고리즘(웨이브프론트, 토릭 보정, 광학존 확장 등)에 따라 상단 가격이 형성된다. 고도근시일수록 광학존을 넓히고 잔여 각막량을 계산하는 정밀 스킴을 쓰는데, 이 옵션이 비용을 올린다.

안내렌즈삽입술(ICL). 고도근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다. 양안 기준 400만 원대 초반에서 700만 원대까지 분포한다. 범위가 넓은 이유는 렌즈 종류와 난시량, 도수 범위,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 수치에 따라 렌즈 모델과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릭 ICL은 비토릭보다 비싸고, 초고도근시에서 특수 도수 대역은 비용이 더 오른다. 렌즈 공급 시점의 환율과 물류도 영향을 준다.

투명 수정체 제거술(RLE). 인공수정체(프리미엄 IOL 포함)로 굴절을 맞춘다. 양안 기준 5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까지 폭이 크다. 다초점, 난시 교정 토릭, 확대 심도(EDOF) 같은 프리미엄 렌즈 선택 시 상단으로 간다. 연령과 직업, 야간 활동이 많다면 단초점 + 모노비전 전략으로 비용을 낮추고 시력 질을 우선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비용. 망막열공 레이저 봉합, 마이봄샘 관리, 안구건조치료, 동공크기 평가와 대비감 개선 프로그램 같은 부가 관리가 들어가면 1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稀하게 그 이상이 붙는다. 재수술 보증이나 장기 추적 패키지 포함 여부도 최종 비용에 차이를 만든다.

이 범위 안에서 어떤 병원이 상단 혹은 하단을 형성하는지는 지역과 규모, 장비, 케이스 경험량이 좌우한다. 고도근시 안과를 표방하는 곳이더라도 가격과 프로토콜은 다르다.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보자.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 체감의 디테일

수도권 중심부, 특히 강남권은 동일 장비, 동일 수술이라도 평균가가 10-30% 높다.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인근 위성도시나 광역시 외곽은 같은 수준의 장비를 갖춘 경우라도 비용이 다소 낮다. 다만 지방이라고 무조건 저렴하다고 단정하면 오류다. 지역 거점 대형 병원은 수도권 상단과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희소 장비를 보유하고 고난도 케이스를 다루면서 숙련 인력 유지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개인 경험을 곁들이면 이렇다. 부산 해운대권과 대구 중심가의 상급 안과는 스마일과 ICL 가격이 서울 강남 중간 값과 거의 비슷했고, 광주와 대전의 일부 병원은 5-10%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반면 창원이나 천안처럼 환자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 거점은 이벤트 폭이 넓어 특정 시즌 한정가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저렴했다. 시간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지역별 상담을 두세 곳 잡아 실측과 견적을 비교하는 편이 낫다. 다만 왕복 이동과 숙박, 재내원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총비용 차이는 생각보다 줄어든다.

병원 규모와 가격, 그리고 ‘경험’이 만드는 가치

큰 병원일수록 비싸다는 통념이 있지만, 고도근시에서는 케이스 경험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안내렌즈삽입술만 해도 생체계측, 전방깊이, 홍채구조, 백내장 진행 가능성, 내피세포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적정 사이즈를 고르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한다. 수술 자체는 20분 전후라도, 준비와 선택이 반 이상이다. 누네안과 같은 전국 체인이나 고도근시 특화 센터는 데이터 축적이 많고, 장비 라인업과 협진 체계가 탄탄하다. 그만큼 비용은 상단에 머무르지만, 재교정율과 합병증 대응 속도에서 이점이 있다. 고도근시 누네안과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은 규모의 전문 안과는 반대로 신속하고 친밀한 상담, 적절한 가격, 예약 대기 짧음이 장점이다. 특정 술식에 강점을 가진 원장이 상주하며 일관된 손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구조라 안정감이 있다. 다만 장비 업그레이드 주기나 야간 응급 대응, 희귀 합병증에 대한 즉각적 자원 투입에선 대형 병원보다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비용을 낮추는 대신, 본인의 눈 상태가 표준 케이스에 가까운지, 망막 소견이 깔끔한지, 건조증이 심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선택하면 좋다.

장비 세대와 가격의 상관관계

가격표에서 흔히 보는 문구는 최신 레이저 세대, 개인 맞춤 알고리즘, 고속 스캐닝, 하이엔드 진단기기다. 예컨대 스마일의 경우 펄토초 레이저 세대가 최신일수록 절개부가 작고 조직 보호에 유리해 야간 빛번짐과 건조감이 완만한 경향이 있다. 라식과 라섹에서도 트래커 속도와 광학존 설계 선택지가 넓으면 고도근시에서 대비감과 야간 운전 만족도가 올라간다.

ICL에서는 최신 설계 버전과 렌즈 재질, 센트레이션 안정성이 주요 변수다. 토릭 ICL의 회전 안정성은 난시 잔여를 좌우하므로 고도난시 동반 환자라면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최신 버전을 택할 이유가 있다. 진단 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각막 단층 촬영, 전방각 분석, 내피세포 현미경, 고해상 OCT, 파라미터 통합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으면 술식 선택과 사이즈 결정에서 실수가 줄어든다. 장비 라인업이 풍부한 곳은 가격 상단에 위치하지만, 재수술과 합병증 가능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총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

보증과 사후관리. 같은 수술이라도 1년 무상 재교정과 소모품, 안약, 건조증 치료 세션을 포함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본 내원만 포함하고 재교정과 특별치료는 별도 과금하는 곳이 있다. 보증 범위가 넓을수록 초기 비용은 올라간다. 고도근시 환자는 건조증, 야간 눈부심, 잔여 난시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사후관리 패키지 구성이 체감 비용에 직접 연결된다.

수술 스케줄과 집도의. 인기 집도의의 수술 슬롯은 대기가 길고 가격이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일정이 유연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면 같은 병원에서도 비용이 낮아지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다. 병원의 프로모션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지, 장비 교체 직후 이벤트가 있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환자 상태. 동공이 큰 환자는 광학존 확대와 추가 야간 대비 보정, 혹은 안내렌즈와 레이저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려한다. 망막 열공 소견이 있으면 레이저 봉합 선행, 정기 안저검사를 추가하므로 초기 비용이 올라간다. 건성안이 심하면 마이봄샘 치료를 수술 전후로 묶어 진행한다. 환자 특성이 들어가면 가격표의 바닥 가격은 의미가 줄어든다.

지역별 평균가의 현실적인 윤곽

서울 강남권. 라식·라섹 양안 180만 원대 후반에서 350만 원대, 스마일 280만 원대에서 420만 원대, ICL 480만 원대에서 700만 원대가 흔하다. 프리미엄 IOL 기반 RLE는 6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대. 보증과 리프팅 프로그램, 야간 대비 프로그램이 포함되면 상단으로 간다.

서울 기타 권역 및 경기 남부. 전체적으로 5-10% 낮다. 이벤트 시 스마일 240만 원대, ICL 430-600만 원대 제안이 가능했다. 다만 초고도근시, 고난시 토릭 ICL은 강남권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심가 상급 병원은 서울 중간값에 근접, 외곽은 10% 안팎 낮은 편. 지역 거점 체인의 패키지 구성이 알차면 사후관리 면에서 체감 만족도가 높다.

중소 도시. 경쟁이 적은 지역은 상술보다 심리적 여유가 있고, 기본 수가가 정직하다. 다만 장비가 오래된 곳과 최신 세대를 운용하는 곳의 간극이 커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재내원 동선과 응급 대응 계획을 묻는 것이 안전하다.

고도근시 안과를 고를 때, 비용 표 뒤에 있는 질문

가격표만 보면 비교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전체 비용이 보인다.

- 우리 케이스와 비슷한 고도근시 환자에서 지난 1년간 어떤 술식을 얼마나 했는지, 재교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숫자와 범위를 요청하되 과장 없는 답을 선호하라.
- 동공크기와 광학존 설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야간 눈부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은 무엇인지.
- ICL의 경우 사이즈 측정 체계와 렌즈 버전, 토릭 회전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재수정이 필요한 경우의 보증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수술 후 1주, 1달, 3달, 6달, 1년의 표준 내원 스케줄과 포함된 치료는 무엇인지. 건조증 관리가 별도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 갑작스러운 시력저하나 통증이 있을 때 야간과 주말에 어떤 경로로 대응하는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일관된 곳이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았다. 상담에서 숫자로 답을 주는 병원이 신뢰를 주는 경험이 반복됐다.

고도근시 수술 비용의 함정과 현실적인 기준선

인상적인 이벤트 가격을 본 환자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묻는다. 정말 이 가격이면 충분한가. 가끔 충분하다. 표준 케이스, 충분한 각막 두께, 작은 동공, 가벼운 생활 패턴이라면 합리적인 이벤트 가격이 좋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고도근시의 특성상 표준에서 벗어나는 변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낮은 초기 비용이 중장기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야간 눈부심을 줄이려 광학존을 넓혔어야 하는데 이벤트 구성에 포함되지 않아 선택하지 못한 경우, ICL 사이즈 재조정이 필요할 때 보증이 없어 렌즈 재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최고가가 정답은 아니다. 고가 패키지에 광고성 항목이 덧붙여 실속이 떨어지는 예도 본다. 기준선을 잡자면 이렇다. 수술 결정의 근거가 당신의 눈 데이터 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가. 동일 수술을 받아도 당신의 동공, 각막, 안축, 생활 습관을 반영한 세부 설정을 들을 수 있는가. 합병증 대응과 재교정, 사후관리의 프로세스가 문서화돼 있고, 비용이 명료한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상단 가격이어도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도근시 누네안과, 그리고 이름값의 의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고도근시 안과, 예컨대 고도근시 누네안과처럼 전국망과 특화 센터를 가진 곳은 일관된 프로토콜과 장비 인프라, 협진 체계가 강점이다. 비용은 대체로 상단에 위치하지만, 희귀 합병증이나 고난도 조합 도수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이름값이 없더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고도근시 케이스를 다룬 원장이 있는 클리닉은 합리적인 비용에 묵직한 결과를 낸다. 동일 도시 내에서도 두 부류가 공존한다. 선택은 당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생활 여건, 그리고 눈의 조건이 정한다.

실제 견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세 가지

사례 A, 20대 후반, -7.50D 양안, 각막 두께 560 μm , 동공 5.8 mm. 스마일과 라식 모두 가능 범위. 야간 운전이 잦아 광학존과 대비감이 관건. 스마일 상단 견적과 맞춤 라식 중간 견적이 비슷했다. 수술자는 스마일을 권했고, 비용은 300만 원대 중후반. 6개월 후 야간 눈부심 호소는 경미했고 건조증은 라식 대비 덜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다.

사례 B, 30대 초반, -10.00D, 난시 -2.00D, 전방 깊이 충분, 내피세포 양호. 라섹은 절삭량이 안전 마진을 침해하므로 ICL 토크 권장. 렌즈 대기 2-3주, 비용 580-650만 원 제시. 토크 회전 안정성 설명과 재수정 보증 포함 조건 확인 후 진행. 1년 후 난시 잔여 -0.25D 수준, 대비감 양호. 렌즈 변경 없이 만족. 초기 비용은 높았지만 안경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직업상 실익이 컸다.

사례 C, 40대 초반, -8.00D, 초기 수정체 혼탁, 야간 빛번짐, 건조증. ICL과 RLE 사이에서 고민. 직업상 근거리 작업이 많고 야간 운전 빈도 낮음. 단초점 IOL + 모노비전 전략으로 RLE 진행, 비용 800만 원대. 초기 적응 기간 2-3주 후 무난. 프리미엄 다초점 대신 단초점 선택으로 비용을 낮추고 시력 질을 확보했다. 이처럼 연령과 수정체 상태가 변수일 때는 RLE가 전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비용을 낮추되 결과를 지키는 실전 팁

가장 큰 비용 절감은 수술 종류의 하향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세 곳에서 동일 데이터로 상담을 받는 것이다. 검사 데이터를 요청해 비교하면 병원마다 제안의 논리와 가격의 구조가 드러난다. 또한 일정 유연성이 있다면 병원의 비성수기 이벤트를 활용하되, 이벤트 항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끝까지 확인하라. 사후관리의 범위, 재교정 보증, 야간 대비 프로그램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또 하나, 수술 전 관리에 투자하라. 건성안이 있다면 마이봄샘 치료를 먼저 하고 각막 표면을 다듬으면 레이저 교정술의 질이 좋아진다. 망막 주변부 이상이 의심되면 사전에 봉합 레이저를 해두면 예기치 못한 추가 내원이 줄어든다. 작은 비용이지만 결과와 추가 비용을 크게 바꾼다.

상담실에서 나눈 현실적인 대화 몇 가지

검사 결과가 국경선에 걸린 케이스에서 환자가 묻는다. 스마일이 되긴 한데, 안전할까요. 의사는 두 장비에서 나온 절삭량, 잔여 실질량, 광학존을 병렬로 보여 준다. 스마일은 가능하되 야간 대형차 운전이 잦다면 대비감 저하 가능성을 솔직히 말한다. ICL로 방향을 돌리면 비용 200만 원 정도가 더 든다. 환자는 5년간의 야간운전 시간을 계산해 본다. 바로 여기서 비용과 삶이 만난다.

다른 경우, 토크 ICL의 미세 회전으로 난시 잔여가 생겼다. 보증 조건에 따라 무상 재정렬이 가능했고, 재내원 스케줄을 평일 이른 아침으로 잡아 직장 부담을 줄였다. 환자는 비용보다 과정의 예측 가능성에 만족했다. 처음 상담 때 보증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던 선택의 효과였다.

고도근시 수술 비용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저가 = 위험, 고가 = 안전이라는 단순화는 잘못이다. 저가라도 표준 케이스에 맞춘 단정한 프로토콜이면 충분히 안전하다. 다만 고도근시는 표준 밖의 변수가 잦다. 반대로 고가라도 개별 눈 데이터에 맞춘 설계가 없다면 의미가 약하다. 결국 비용은 '데이터로 설명 가능한 선택'에 붙는 가격이어야 한다.

또 하나의 오해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니 흥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소모품과 렌즈가 포함된 수술은 원가 구조가 뚜렷하다. 무리한 할인은 어디선가 조건이 빠졌거나 사후관리 범위가 줄어든 것일 수 있다. 가격 협상보다 조건 명확화가 중요하다.

마지막 점검: 당신이 지불하는 비용의 내용

[고도근시 안과](#)

수술 전 검사의 폭과 깊이, 술식 결정의 근거, 장비 세대, 집도의의 경험 데이터, 사후관리 범위와 보증, 응급 대응 프로토콜. 이 여섯 가지가 명확하면 비용의 숫자에 설득력이 생긴다. 고도근시 안과 추천을 묻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병원 이름을 하나 적어 주기보다, 이 여섯 가지를 체크해 볼 것을 권한다. 어떤 도시에서 어떤 병원을 고르든, 답은 결국 이 체크리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고도근시 수술 비용은 한 번의 지출이 아니라, 시력의 질과 위험 관리라는 장기 패키지의 가격이다. 당신의 눈에 맞춘 선택이라면 비싸도 비싸지 않다. 반대로 멋진 가격표라도 당신의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싸지도 않다. 숫자와 삶을 함께 놓고 계산하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비교다.